3. 한국 반려동물의 현황 및 실태

조희경 / 한국동물복지협회장

Ⅰ. 현황 (주로 개, 고양이를 중심으로)

1. 한국사회에서의 개와 고양이의 위치에 대한 고찰

• 대개, 반려동물, 경비의 역할, 식용 (도형 표시)

개는 인간과 10,00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왔다. 각 나라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개의 역할과 지위는 조금씩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문화·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개의 위치는 단연 반려동물로써의 그 지위가 확고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대의 산업사회 이전까지는 농경사회를 주로 이루며 살아왔었다. 때문에 목축업은 발달하지 못해서 육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민가에서 쉽게 사육할 수 있는 개와 닭 등이 부족한 육류의 공급원이 되었다.

그러나, 민가에서 키울 수 있는 가축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유독 개는 단지 식용의 가축으로써만 그 개념이 고착된 것이 아닌, 인간 친화적인 동물의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은 우리의 옛 풍속화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풍속도 삽입) 이는 개에 대한 특수한 지위가 역사적으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그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발전되어 이제 개는 반려동물로써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개가 인간에게 주는 정서적 이로움은 다른 시간에서 다루어짐) 그리고 개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경비견으로써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부분적으로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역할이다.

고양이는 주로 곡식 등의 식량에 피해를 주는 쥐를 퇴치하게 하기 위한 곳간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해왔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양이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미신적 정서도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자리메김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2. 애견 문화의 확산

한국의 사회에서 3대 이상이 함께 살던 전통적 가족 형태는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 되었고, 노인과 독신, 독자 가정들도 늘어나면서 개와 고양이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서 국가 경제 발전 이후 우리 사회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1990년대 이후 반려동물 인구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를 반영하듯 반려동물을 주제로 하는 TV방송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사람들에게 개를 키우고자 하는 욕구를 증가시켜서 애견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부터 방영된 sbs 동물농장은 일요일 간판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만큼 인기가 높았었는데, 그 당시 시추 '찌루 가족'에 이어 코카스패니엘 '웅자'의 인기는 애견 문화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정 견종 선호의 바람을 일으킬 정도였다.

3. 현재 반려동물 인구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행정 당국이나 관련 단체들도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대략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경우 2004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애견 가정은 17%를 선회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까지 예측한 잠재적 애견 가정은 21%로써 5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문화에 대해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해주는 자료이다.

Ⅱ. 실태

개와 고양이는 인간 정서 함양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에 반해 책임 의식과 제도는 현실 대처에 매우 미흡해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은 사회적으로는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을 동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유기동물의 문제점, 애견산업에서의 잉여동물의 종말 등에 대해서 전개한다.

1. 가정에서의 잘못된 양육 실태

• 왜곡된 양육 상식의 폐해

동물에 대한 잘못된 양육 정보에 의해 동물을 건강하게 돌보지 않는다거나 과잉 보호 등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실례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개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들은 개에게 밥을 적게 먹여야 몸이 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개에게 발육부진을 유발시킨다.)

• 방치

인간의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은 인간에 의해 적절한 관리가 되어야 상호간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을 돌보기에 매우 소극적인 보호자들은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결국은 제3자 양도 및 유기로 이어지게 한다거나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둔 채 겨우 목숨만을 연명시키게 한다.

• 학대

동물을 소유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 중에는 동물에게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한다.

혹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스스로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물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2. 사회적 갈등

바른 반려동물 문화 의식과 제도가 선행되지 못한 채 확산된 애견문화는, 공동주택 및 공공 장소에서의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를 유발시킨다. 200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기준 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형태, 즉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가구 주택에 이르기까지의 공동주거형태의 비율이 62.8%에 달한다.

공동 주택 개념의 주거 형태가 절대다수인 우리나라의 경우, 개 등을 키움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유기동물의 증가

책임 의식 부재와 무분별한 번식, 반려동물 관리 관련 법과 제도의 부재는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4. 유기동물의 처우와 실태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산다. 간혹 운 좋게도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하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 객사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차량 사고, 학대, 질병 감염 등에 의해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다가 죽는다.

• 구조

극소수의 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시설에 구조, 보호된다. 사회적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은 매우 적게 배정되어 있어서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위탁업체에 의해 관리될 경우, 보호 동물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아사, 질병에 의한 폐사 등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 개고기 유통

기르던 개를 끝까지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돌보는 것이 귀찮아졌을 때 대개의 혼혈종 개들은 식용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순혈 품종의 개들은 제3자 양도가 거듭되거나 길거리로 내몰릴 경우 상당수가 개고기 업자들에게 포획되어 식용으로 유통된다.

그동안 우리가 활동하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는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에서 돌보아지던 개들은 처음부터 식용의 목적으로 길러지는 개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경로를 거쳐 종말에는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게 된다.

사회 여론을 끌고 가는 일부에서 주도적으로 개를 식용과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개고기 유통 현장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개를 식용 가축과 반려동물로 구분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적인 충돌만 야기되고 있을 뿐이어서 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 고양이

쥐의 천적으로써 주로 식량 지킴이로 길러지던 고양이는,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쥐잡기 정책에 이어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쥐의 개체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양이들은

점차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번식력이 강한 고양이들은 빠른 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하며 사람들과 충돌하게 된다.

번식기에 짝을 찾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먹이를 찾아 나선 고양이들의 쓰레기 파헤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해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경계심 등은 고양이 퇴치를 요구하는 민원의 증가를 가져왔다.

Ⅲ. 과제와 대안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의제로 떠오른지 이미 오래되었다. 서울시만 해도 유기동물관리 비용이 1년에 10억 정도 소요되고 있다. 국민들은 동물보호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피학대동물, 유기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유기동물은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 반려동물 등록제

보호자들에게는 책임의식을 갖게 함에 목적을 둠으로써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

• 인식표 또는 마이크로칩 부착

유기동물 예방 및 동물의 질병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중성화 수술의 제도적 지원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애견분양 업체들이 도산에 이르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기동물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국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인해 구조 요청의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현상도 포함되지만, 무분별한 가정 번식도 개체수 증가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중성화 수술 홍보캠페인과 더불어 수술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유기동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될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양이 TNR시스템 도입 및 제도 정착

고양이 개체수 증가 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인내하는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대개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1회성으로 고양이들을 포획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비용만 발생할뿐 고양이 개체수 감소에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 안락사

지속적으로 유기동물을 접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위탁보호소는 반드시 눈여겨 보아야 한다. 수용과 관리 인력의 한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보호소는 동물에게 원치 않는 상황을 가할 확률이 높다.

• 교육 및 캠페인

동물을 친절하게 대하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익히도록 한다. 또한 동물로 인한 이웃 갈등은 인간 상호간의 해결 과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미치지 않게 동물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가 아닌 동물의 관점에서 동물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